

나주, 국립 에너지전문과학관 유치...명품 과학관 조성

나주시가 국립 나주 에너지전문과학관 유치를 확정 지으며 미래 에너지 교육과 연구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정부 예산 반영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학연이 협력의향서 제출, 현장 실사 협조 등 결정적 순간마다 한 목소리로 지원한 '원팀 시스템'이 빛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에 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을 넘었다.

지난 8월 최대 관문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당성 조사 통과 과정에서 지역 유관기관의 헌신적인 지원이 눈에 띄었는데, 지난 1월 이전 공공기관 임원 정례 간담회에서 과학관 건립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협력의향서를 요청했으며 각 기관

이전 공공기관·에너지 산학연 원팀 협력...건립 전폭 지지

타당성 조사에 전력거래소·켄텍·전력연구원 등 총력 지원

은 빠르게 의향서를 제출하며 건립 의지를 함께했다.

이 같은 지지 확산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산업계 전반으로 이어져 한국 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남에너지산업협회 등 주요 단체들도 협력 의향서를 제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타당성 조사 평가단의 현장 실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한전 전력연구원 에너지신기술연구소 등 핵심 에너지 기관들이 바쁜 일정에도 현장 방문과 인터뷰에 적극 협력했다.

이들 기관은 나주가 보유한 에너지 연구

인프라와 전문 인력, 실증 기반 등을 평가단에 전달하며 과학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 결과 나주는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예산 반영이라는 결정적인 관문을 넘게 됐다.

윤병태 시장은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지역 모든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과학문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도움을 준 기관들의 전문성과 강점을 과학관 곳곳에 녹여내 전국의 학생들이 찾아와 꿈을 키울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 과학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시가 국립 나주 에너지전문과학관 유치를 확정 지으며 미래 에너지 교육과 연구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나주시청, 전력거래소, 전력연구원 산하 에너지신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2월의 장성’ 선물 같은 공연 가득

재즈쇼·가족뮤지컬 등 3편...“행복한 추억 만들기”

장성군이 한 해의 마지막 달,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풍성한 공연 3편을 선보인다. 7일 군에 따르면 9일 오후 7시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소통왕 말자 할매 더 재즈 쇼’가 열린다. 코미디언 김영희·정범균이 관객들과 즉석으로 소통하며 생생한 웃음을 전한다. 12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고 장성군 누리집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주말인 13일 소공연장에서는 가족 뮤지컬 ‘산타 & 루돌프’가 기다린다. 크리스마스 전날, 산타 할아버지의 기적 소리를 들은 주인공 ‘하인드’가 할아버지 몰래 루돌프와 선물을 주러 떠나면서 흥미진진한 모험담이 펼쳐진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 4시 3회 공연이며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매가 시작된다. 현장 예매는 같은 날 오후 6시부터다.

20일에는 가족뮤지컬 ‘백설공주’를 만날 수 있다. 고전 동화를 재해석한



어린이 뮤지컬로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진 화려한 연출이 돋보인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재미와 감동을 만끽할 수 있다.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회 공연하고 예매 시간은 11일 오전 9시부터다. 오후 6시

부터는 현장 예매도 받는다.

‘소통왕 말자 할매 더 재즈 쇼’와 ‘백설공주’는 장애인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이어서 더욱 뜻깊다. ‘산타 & 루돌프’는 올해의 마지막 ‘상상더하기’ 공연이다. ‘상상더하기’는 장성군이 아이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기획 공연 ‘브랜드’다. 관람료는 어린이·학생 2000원, 성인 4000원이다.

김한중 군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아이들과 손잡고 공연을 관람하면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hnb6699@

여수, 내년도 국비 8169억 확보 ‘역대 최대’

2026 섬 방문의 해 지정

섬박람회 성공 예산 확보

여수~남해 해저터널건설 등

SOC 사업 확충 예산 반영

여수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역대 최고액인 816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보다 478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같은 성과는 앞서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지역현안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한 결과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주요 SOC분야 사업은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1095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520억원),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10억원), 거문도 삼호교 신설(127억원) 등이다.

농림·해양 분야에서는 광양항 낙포두 재개발 사업(367억원),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 재개발사업(122억원), 특수



정기명 여수시장은 최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역현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상황 지역개발사업(145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따른 여수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산업 위기 대응 사업(179억원), 석유화학 무탄소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83억원), 탄소포집·활용 기술개발·실증 사업(55억원) 등을 확보했다.

문화·관광 분야 사업으로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31억2000만원), K-관광 섬 육성사업(26억원) 등이 포함됐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개최(32억원), 2026 섬 방문의 해 지정(20억원) 등이 반영됐다.

정기명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 1원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역대 최고액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는 열심히 노력해준 직원들과 큰 힘을 보태준 지역 구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등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공시

제 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에고합29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방 심영섭 위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사실의 증명에 실패한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년 12월 4일

판사 김용규

판사 김준영

판사 김문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공시

제 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에고합28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방 김용형 위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사실의 증명에 실패한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년 12월 4일

판사 김용규

판사 김준영

판사 김문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공시

제 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포고제25 포고제2호위반 피고인 방 박동석 외 1명 위 피고인들은 포고제2호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사실의 증명에 실패한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년 12월 4일

판사 김용규

판사 김준영

판사 김문영

광남일보가 만드는 사람·문화·관광중심 월간지

전라도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 구독문의 062-370-7080 / 팩스 062-370-7005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Design, Printing, AD, PR, Solution

나의 소통코스

종합광고물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광남일보 iTV

구독·좋아요·댓글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호국학 자초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동사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륜산 불희사

광고·사정문의 062)370-7077